

커버스토리(2026. 5)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바라본 K-AEO의 미래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 고도화되는 AEO 심사체계와 운영방향

I. 들어가며



관세평가분류원은 AEO 심사 전문기관으로서, 2003년 관세청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 AEO 공인 및 종합심사, 수출입물류 안전관리 기준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AEO 제도의

운영과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품의 과세가격 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관세 행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AEO 제도의 역할 역시 공급망 신뢰와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은 AEO 심사 수행 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과 연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AEO진흥협회와도 AEO 심사업무 수행, 정례회의(AEO DAY) 개최, 공인기업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AEO 제도의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을 만나 AEO 제도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II. “현장에 답이 있다”... 기업 중심으로 진화하는 AEO 심사체계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지난해 7월 관세평가분류원에 부임한 이후,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기조 아래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심사와 제도 운영에 반영하는데 집중해왔다”라고 말했다. 특히 AEO 제도는 본질적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외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임 이후 AEO 공인 및 갱신심사 프로세스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눈에 띄게 고도화되었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심사 대상 기업별 사업의 형태와 운영 구조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핵심 업무와 주요 사업장에 심사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정비했다”라며, “중요한 부분은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는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입체적인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 관세평가분류원과 한국AEO진흥협회의 정례회의(AEO DAY) 사진 >



<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 >

이와 함께 **현장심사 과정**에서는 **기업 부담 완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원격심사** 방식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격·버추얼(Virtual) 심사 활용이 확대**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관세평가분류원은 2025년 **원격심사 수행 절차**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나섰다. 시범운영 후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후기를 청취한 결과 대부분이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향후 **확대를 희망**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에 대해 “기업부담은 줄이면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관련해서도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기업 입장에서 **통관 과정의 불확실성**과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가급적이면 신속·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상이한 품목분류** 적용으로 예상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 결정문** 제공과 함께 **해외 대응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관세당국과의 품목분류 차이로 **국제 통관 분쟁**을 겪는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해 기업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며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기업의 **AI 기반 품목분류** 활용이 증가하는 흐름과 관련해서 “기업들도 ChatGPT나 Gemini 등 **생성형 AI**를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품목분류는 **전문적인 검토**가 함께 필요한 분야인 만큼 아직은 **정확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판단은 전문성과 실제 심사 경험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별지 제1호서식 -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처리기한 15일/30일
① 신청인구분	<input type="checkbox"/> 수출입자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③ 수출입구분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수출 제조자			
신청인	① 회사(업체)명	④ 대표자 성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⑤ 관세사부호		
	③ 주소	⑥ 전 화 번 호		
	④ 담당자성명	⑦ FAX 번 호		
수출입자중	⑧ 휴대전화번호	⑨ 처리과정수신방법	<input type="checkbox"/> 이메일과 SMS <input type="checkbox"/> 통보인합	
	⑩ 전자 메 일	⑩ 담당자 성명		
	⑪ 수출입제명	⑪ 전 화 번 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⑫ 전자 메 일		
⑬ 홈페이지				
⑭ 주소				
⑮ 해외 거래처	전화 호	이메일주소		
⑯ 품목명				
⑰ 품목명				
⑱ 원산지		원산지		
⑲ 품목명		불품첨명서(별지 제1호서식외 갑지)에 기재		
⑳ 품목명		불품첨명서(별지 제1호서식외 갑지)에 기재		
㉑ 수입품명		불품첨명서(별지 제1호서식외 갑지)에 기재		
㉒ 수입품명		불품첨명서(별지 제1호서식외 갑지)에 기재		
㉓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세율·세액 확인 <input type="checkbox"/> 관세환급 <input type="checkbox"/> 수출입요건 확인	<input type="checkbox"/> 원산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6단위 소호확인(수입/수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㉔ 신속심사요청사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해외 관세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 확인 요청	<input type="checkbox"/>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input type="checkbox"/>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㉕ 수출입신고이력	<input type="checkbox"/> 수출입품 6단위 소호확인 <input type="checkbox"/> 전자수해당시 별지 제1호외 서식 제출	<input type="checkbox"/> 유 (신고세면 :)		
㉖ 견본제출여부	<input type="checkbox"/> 제출 <input type="checkbox"/>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견본반환 <input type="checkbox"/> 반환불요 <input type="checkbox"/> 반환요		
㉗ 결과 비공개 (제1호제1항 제1호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규·계획단계물품 <input type="checkbox"/> 정분·제조비밀 물품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비공개 청명사유 물품		
㉘ 수수료	내용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필수 구비서류				
1.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 시 대체사진 3장)				
2. 제조서식외 증명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공정도 및 제조사명 설명서 1부.				
3. 불품첨명서 - 별지 제1호서식 외지				
※ 유의사항				
1. 별첨조서나 불복(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따라 결정되므로, 다양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한 물품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주요한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품목분류 심사과정에서 불품 상세정보 등 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와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불품첨명서와 견본, 증명에 불합리한 경우 국세청에서 제출한 견본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는 1통 복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수출입 임박, 막대한 경제적 피해 예상 등 신속한 품목분류사전심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시 사유기재와 별지 제1호외2 서식을 제출하시면 사전심사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7. 관세청과 수입인 경우 세관에서 통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방용지 80g/㎡(재활용품))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양식 >

* **패스트 트랙(Fast-Track)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로,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III. AEO 제도, 통관 혜택을 넘어 기업 경쟁력으로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AEO 제도는 통관 혜택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며, “실제로 여러 수출입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진과 면담** 과정에서, AEO 제도를 **경영 효율화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는 공인 혜택이나 거래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AEO 공인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준비를 하다 보면 공급망 관리와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라며, “AEO 공인 취득을 계기로 **기존 업무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볼 때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 AEO 공인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 >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한 의류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며, AEO 제도가 공급망 관리 체계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원재료를 중국에서 조달한 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해 국내로 수입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해외 환적 과정**에서 컨테이너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해 **물류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고, **계절 상품 판매 시기**를 놓치면서 경영상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기업은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였고, 발주부터 생산·운송·입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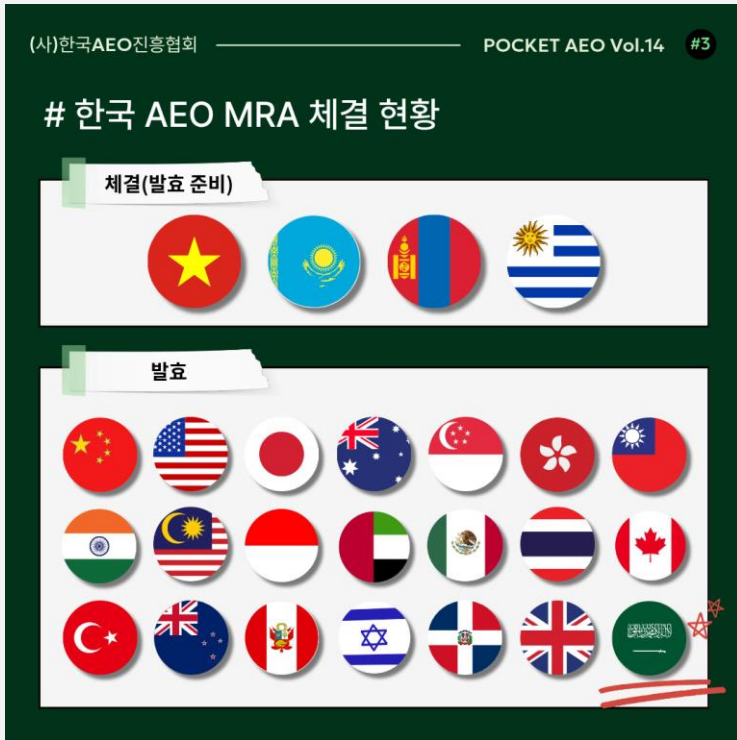
이를 통해 **컨테이너 위치와 물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창고 운영 일정과 재고 관리** 효율성도 함께 개선되었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물류비 절감**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를 통해 실제로 **경영진 차원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 AEO 활용사례를 이야기하는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 >

또한 여러 기업 관계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AEO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으로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꼽았다. AEO 공인 준비 과정을 단순한 심사 대응 과정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킨 기업일수록 제도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공인 준비 과정 자체를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계기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IV.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K-AEO



< 한국 AEO MRA 체결 현황 >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우리나라 AEO 제도가 국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우수한 운영 체계를 갖춘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인기준이 비교적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 AEO 제도, 일명 K-AEO의 특징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에서는 준비 과정이 쉽지 않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만큼 공인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와의 AEO MRA(상호인정 약정)를 통해 해외에서도 실질적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 국가와의 AEO MRA 확대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AEO 공인기업별로 지정되는 AM(기업상담전문관) 제도를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AEO 제도의 강점 중 하나”라며, “최근에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나 우수물류 기업 인증 등 국내 타 인증제도와 연계도 확대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 활용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우리나라 AEO 제도가 그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와 전문성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우리나라 AEO 제도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 >

* 글로벌 사우스 국가
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신흥국·개발도상국



V. 디지털 전환 속 달라지는 AEO 심사 환경



<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협회 김예나 연구원 >

최근 관세행정 분야에서도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향후 AEO 공인 심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업별 심사 사례와 누적된 위험 데이터를 AI 기반 분석 기술로 검토해,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심사와 서류심사 방식 역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향후 심사 도구로서 AI 기반 분석 기술 활용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 기반 분석이나 데이터 자동화 기술 등이 고도화된다면 심사 효율성도 지금보다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효율적인 심사 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며, “특히 인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황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평가분류원 역시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강의와 교육 등을 진행하며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보안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현재 범용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기업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에는 기업 내부망 기반의 맞춤형 AI 서비스 등 보다 안전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공급망 안전과 기업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AEO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VI. 국내 수출입기업들을 위한 메시지... “AEO는 일회성 인증이 아닌 지속적인 경쟁력 관리”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국내 수출입기업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AEO 공인이 단순한 일회성 공인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공급망 안전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EO 공인 취득을 부담으로 보기보다 **기업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며 “실제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공급망 관리**와 **내부 운영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초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세평가분류원 역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공인을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세평가분류원의 임직원과 협회 임직원의 단체사진 >

VII. 마치며

이번 인터뷰를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은 AEO 공인 심사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지원, HS 국제분쟁 신고센터 대응, 기업 민원 해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은 AEO 제도의 가치가 제도상 **명시된 혜택**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이 AEO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공인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업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물류 효율성 향상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법규준수도를 충족하면 **일부 위험평가가 면제**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AEO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준비 과정**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계기로 **기업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성과 신뢰가 중요해지는 지금, AEO 공인은 우리 기업이 **국제적인 신뢰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업들이 AEO 제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한국AEO진흥협회 역시 앞으로 관세평가분류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AEO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세 행정의 편의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다.

작성 : 연구기획부 김예나 연구원
(ynkim@aeo.or.kr)

